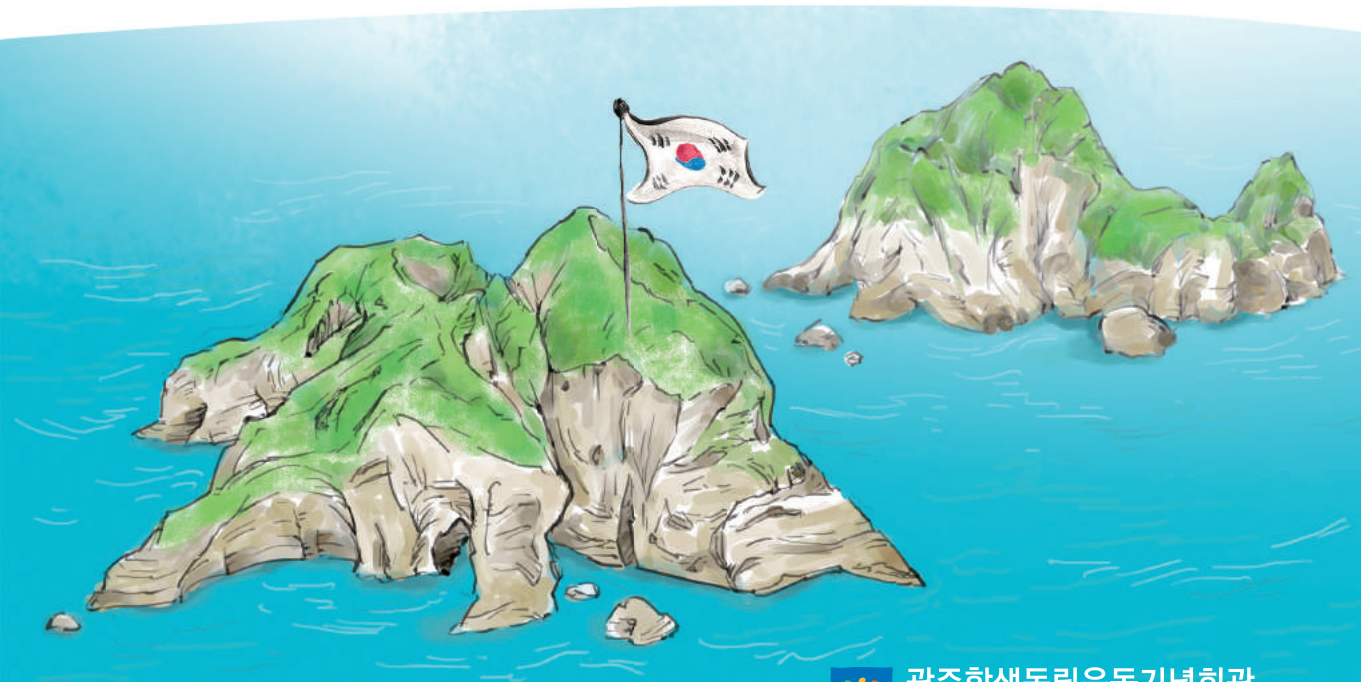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Dokdo of Korea

독도 YES

다케시마 NO!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독도전시관)

다케시마 NO!
독도 YES

○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_04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_24

○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 _44

○ 독도퀴즈 _46

01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 다케시마란 말이 왜 1905년에서야 생겼냐고? 19세기 후반에 울릉도가 송도로도 불리게 되면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이름을 짓게 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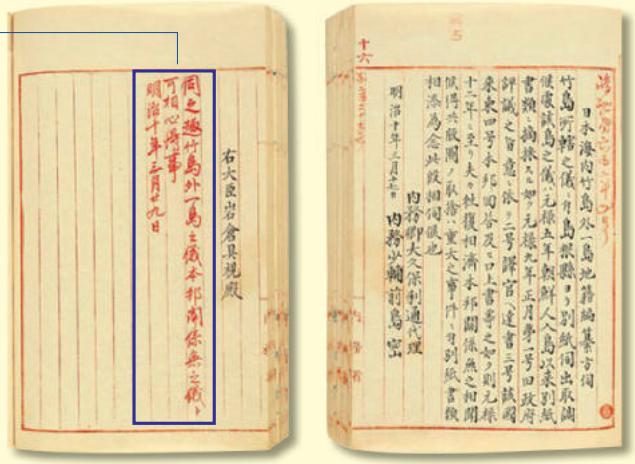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고 있었어.”

1779년에 일본이 만든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역 밖에 그려져 있어. 그런데 1846년에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다시 만들면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말하고 있어.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도 일본의 서북쪽 경계가 오키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어.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속하게된 과정’이라는 내용이 있어. 또한 일본 내무성이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를 물었어. 그러자 태정관은 ‘죽도 외 1도(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려 보냈어. 이처럼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조선 땅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매우 많아.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와 1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메이지 10년(1877) 3월 29일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 지령(1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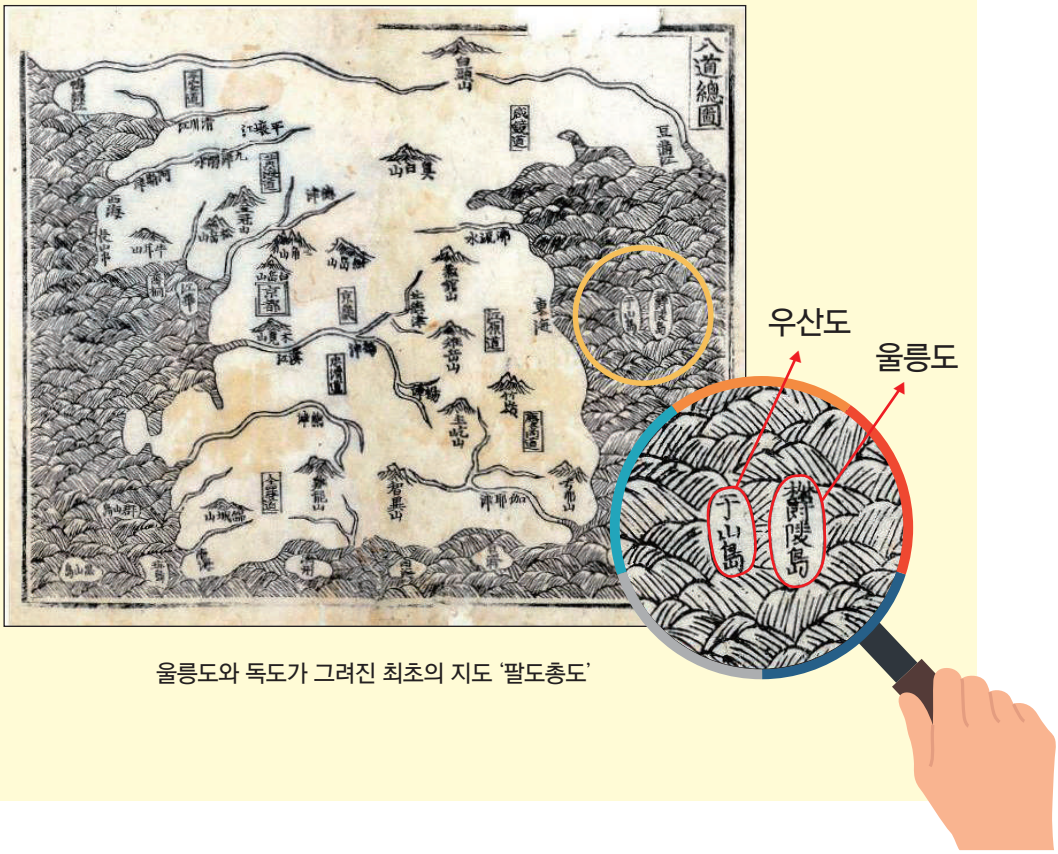
02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한국은 옛날 문서나 옛날 지도에 적혀있는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해.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하고 있어."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와 무릉(울릉도)는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과 우산도가 우산국의 소속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는 내용을 보면 우산도가 확실히 독도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어.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두 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팔도총도'

03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어.”

에도 시대 초기 돗토리번의 주민이 막부로부터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 독점적으로 어업을 했어. 독도는 울릉도에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배가 머무르는 곳으로 이용하거나 강치 · 전복 잡이 장소로 이용한 거야. 이렇게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부터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어.

“막부와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어.”

‘죽도 도해면허’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허가하는 증명서로, 일본에서 일본의 섬으로 건너가는 데는 필요가 없어. 도해면허를 내주었다는 것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지.

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영토문제가 발생하자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죽도(울릉도) 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어.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했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스스로 명백히 밝힌 셈이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서 어업을 하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도해금지령)을 내렸어.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거야.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서(1695)

죽도(울릉도)는 이나바, 호키(도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호키국 요나고의 상인 오야 구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라는 자가 건너가 어업하는 것을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건너간 적이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그 일은 잘 모릅니다.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그 외 양국(이나바, 호키)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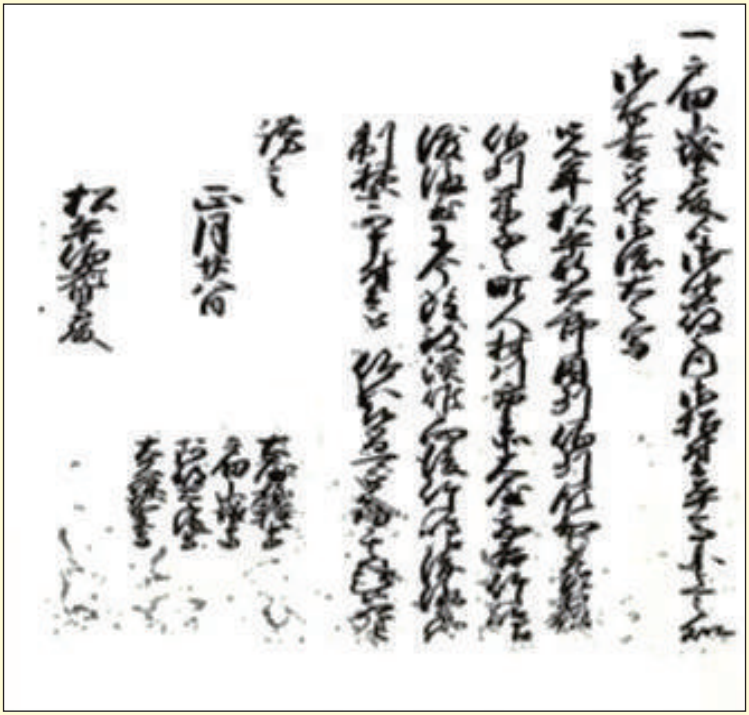
04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일본은 17세기 말 독도에 가는 것(도해)은 금지하지 않았어."

조선과 울릉도 문제가 일어나자 에도 막부는 1696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해서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조선도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에도 막부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했지만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어. 이것이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야. 따로 도해 금지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그건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고 생각해서 독도에 가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잠깐 쉬거나 물고기를 잡는 곳으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대. 그 말은 독도에만 가려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없었다는 거지.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즉,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

…… 이전에 마쓰다이라 산타로가 인슈와 하쿠슈를 다스리던 때, 하쿠슈 요나고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05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안용복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어."

안용복은 1696년 국가의 금지명령을 어기고 두 번째 일본으로 왔어. 다시 조선으로 귀국한 후 조사를 받아. 그 때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해. 하지만 안용복의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도 있어.

"안용복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기록에 다 남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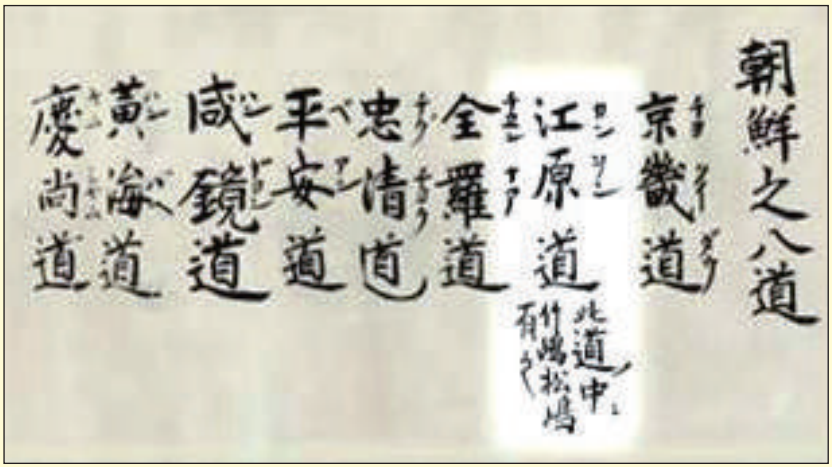
안용복의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유로 안용복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

"숙종실록"에는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안용복은 "송도는 자산도(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의 침범에 항의했어.

안용복 동상(부산 수영구)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일본의 조사 보고서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기록은 "숙종실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1696년 1월에 내려졌어. 그런데 안용복은 5월에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말했어. 이것을 가지고 일본은 안용복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나 1월에 내려진 막부의 금지 명령은 즉각 전달되지 않았어. 조선에도 10월에야 전달됐어. 따라서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 1월이고, 안용복이 5월에 일본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일본 주장은 맞지 않아.


朝鮮之八道
京畿道
江原道
全羅道
忠清道
平安道
咸鏡道
黃海道
慶尙道

안용복의 진술을 오키섬 관리가 기록한 문서

06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일본 땅임을 다시 확인한 거야.”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의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의사를 다시 확인했어. 그리고 2월에 시마네 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섬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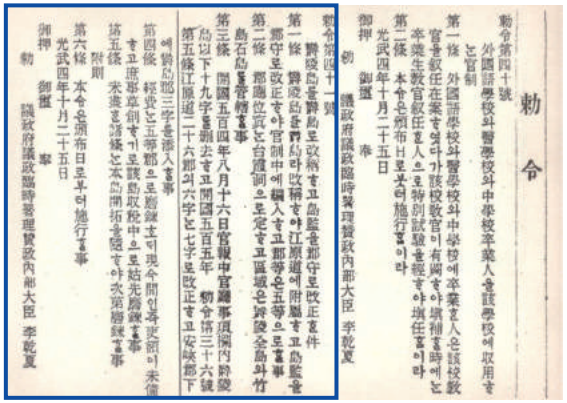
‘시마네현 고시’ 표지

“일본은 러일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를 차지했어.”

진실은 이것이야!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울릉도에 두 개의 망루를 세웠지. 그때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의 지시로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이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거지. 내무성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다’고 하여 청원을 없는 일로 하려고 했어. 그러나 외무성은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편입을 추진했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야.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일본이 점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1900년 10월 25일 내려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이를 다시 확인한 거야.



勅令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와 醫學校와 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收用ᄒᆞᄂᆞᆫ 件

第一條 外國語學校와 醫學校와 中學校에 卒業ᄒᆞᆫ 人은 該校敎官 或 官叙任在案ᄒᆞ얏다가 該校敎官이 有闕ᄒᆞ야 銓補ᄒᆞᆯ 時에ᄂᆞᆫ 卒業生敎官叙任ᄒᆞᆯ 人으로 特別試驗을 經ᄒᆞ야 塡任ᄒᆞᆷ이라

第二條 本令은 頒布日로 施行ᄒᆞᆷ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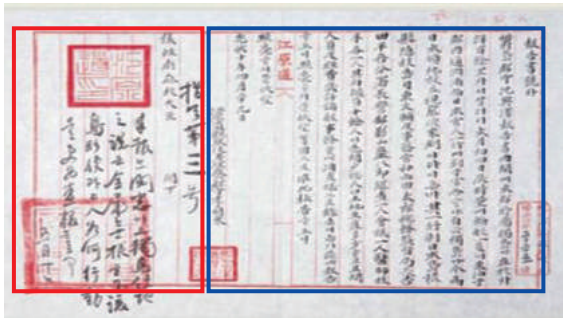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또한 일본은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입을 강행했어.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됐다는 말을 듣게 돼. 심흥택은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정부에 보고했어. 보고를 받은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어. 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거야.



강원도 관찰사 서리 겸 춘천 군수 이명래 보고서 호외(오른쪽)
및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3호(왼쪽)

07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의견을 냈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때 한국은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도록 미국에 요구했어.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지.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진실은 이것이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조약이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카이로 선언(1943)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또 포츠담 선언(1945년)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할 ‘작은 섬들’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했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승되었어. 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총사령부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했어. 이와 관련된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어.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연합국의 전후처리 조치와 SCAPIN 제677호를 계승하였어. 따라서 당연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의 의견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어. 연합국 전체가 합의한 견해가 아니니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야.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상의 독도

08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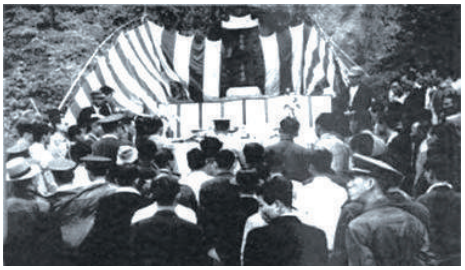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했어."

1952년 미국과 일본은 독도를 일본에 있는 미군이 폭격할 수 있는 훈련 구역으로 정했어. 일본 외무성은 이를 널리 알렸어.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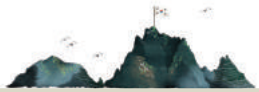
진실은 이것이야!

"미국 공군은 우리나라가 항의하자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에서 즉시 제외했어."

독도는 한국이 영토 주권을 행사해 왔던 섬이야. 한국 어민들의 중요한 활동 지역이었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했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말이야. 일본이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정하도록 한 사실은 일본 국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1948년 6월 미국 공군의 독도 폭격으로 많은 어민들이 희생되자, 1950년 6월 독도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실제로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많은 어민들이 희생된 일이 있었어. 이에 대해 미국 공군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즉각 독도에 대한 폭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1952년 일본의 요청으로 미국이 다시 독도를 폭격 지역으로 정하게 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폭격훈련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어. 결국 미국은 1953년 1월 독도를 폭격 훈련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했어. 그 이후 미국 공군의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일본 국회회의록 자료

1952년 5월 23일

- **야마모토 의원** : "이번에 주둔군의 일본 내 훈련구역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훈련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훈련구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방면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09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한국은 국제법 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따라서 한국이 독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 일본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해야 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정당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실은 이것이야!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리해 왔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제국은 일본의 불법적 독도 침탈에 대해서 직접 항의하지 못했어. 을사늑약으로 인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이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찾았어. 한국은 1948년 이후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했어. 이에 대해 연합국과

독도 등대

독도경비대

일본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어.

현재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또한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도 독도를 방문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방해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불과한 거야.

10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독도가 누구 땅인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자고 한국에 제안했어. 하지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국재사법재판소에 가면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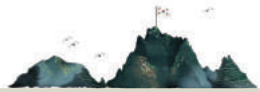
진실은 이것이야!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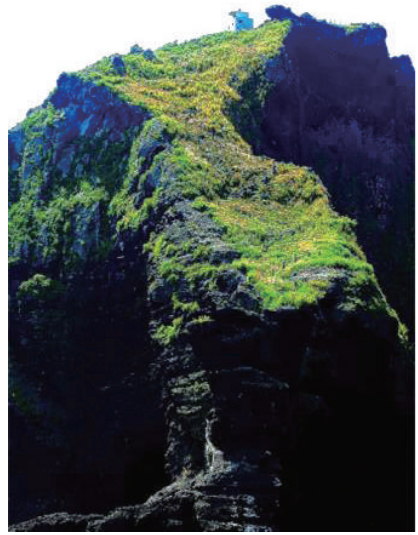
독도는 역사 · 지리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야.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 · 행정 · 사법적으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해도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독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최초의 희생물이었어.

독도에 새겨진 '한국령' 표석



우리 땅을 주인 없는 섬이라고 빼앗아 갔지.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대답해 줘야 해. 한국인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라고. 독도는 결코 외교를 통하거나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확실한 우리땅이야.



독도의 '한반도' 지형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떻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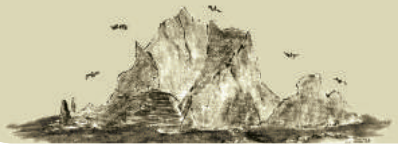
–1954년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성명서' 중에서

독 도
바로알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1 독도는 왜 이름이 '독도'인가요?

독도는 우산도, 독섬, 석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어. '우산도'라는 이름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점령한 우산국에서 유래한 것이야. '자산도(子山島)'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산도(于山島)'를 한자가 비슷해서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도'라는 이름은 가지어(강치, 바다사자)가 사는 섬에서 유래되었어. '석도(石島)'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 뜻은 '돌섬', 즉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이지. 19세기 말부터 전라도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독도에 자주 왔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돌을 '독'이라고 해. 그래서 '독섬'이라고 불렀어.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심흥택 울릉군수가 처음 썼고, 대한매일신보에도 등장을 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것을 알리면서 쓴 거야. 돌섬, 독섬을 한자로 쓰면서 '독'을 한자 '독(獨)', 섬을 한자 '도(島)'로 표기한 거야. 따라서 독도는 한자 풀이처럼 '홀로 있는 섬'이 아니라 '독섬(돌섬)'이라는 뜻이야.

일본에서는 현재 다케시마(죽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쓰시마(송도)라고 불렀어. 또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면서 배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록스(리앙쿠르암)이라고 했지. 이를 일본이 일본식 발음으로 량코도라고도 불렀어.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씨가 내부에 보고하되,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울도)에 와서 본군 소재 독도는 일본에 속한 땅이라 스스로 칭하고 지역의 넓이, 집과 사람의 수, 농지면적을 일일이 적어갔다."라고 했다. 내부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길에 지역의 넓이와 집과 사람 수를 적어간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독도가 일본에 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럴 이유가 없으니 이번의 보고가 매우 놀랍다."라고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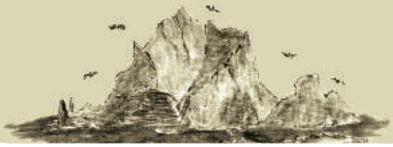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2 우리나라와 일본 중 누가 더 빨리 독도의 존재를 알았나요?

➜ 당연히 우리나라지. 옛 기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1145년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나와. 이게 최초의 기록이야.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보면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실제로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여.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되어 있어.

세종실록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은주시청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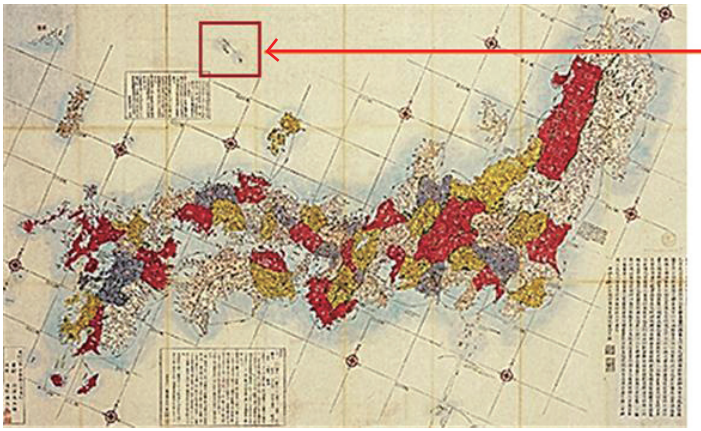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67년에 쓰인 "은주시청합기"야. 여기에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책에서는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했어. "세종실록"의 기록이 "은주시청합기"의 기록보다 무려 213년이나 앞서 있어. 또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를 묻자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 이 외에도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안용복을 심문한 오키섬의 관리의 기록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나와 있어.

지도를 봐도 우리 땅임이 명확해. 독도가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1531년에 만들어진 '팔도총도'야. 팔도총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들어있는데, 동해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또 18세기에 그려진 '동국대지도'도 있어. '동국대지도'는 정상기가 그린 '동국지도'를 그대로 옮겨 그린 지도라고 해. 이 지도에는 정확하게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동국대지도

독 도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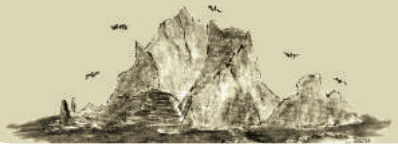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고려를 바라보는것은 시마네현에서 오키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일본의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송도)가 나오는데 모두 우리 땅으로 표시했어. 1779년에 만들어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보면, 일본 땅에는 색이 칠해져 있는데, 조선 본토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는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 또한 "(죽도에서) 고려(조선)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시마네현)에서 인슈(오키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접양지도'(1785)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 쓰여 있어. 가장 핵심은 일본 육군참모국이 일본영토 전체를 그린 '대일본전도'(1877)야.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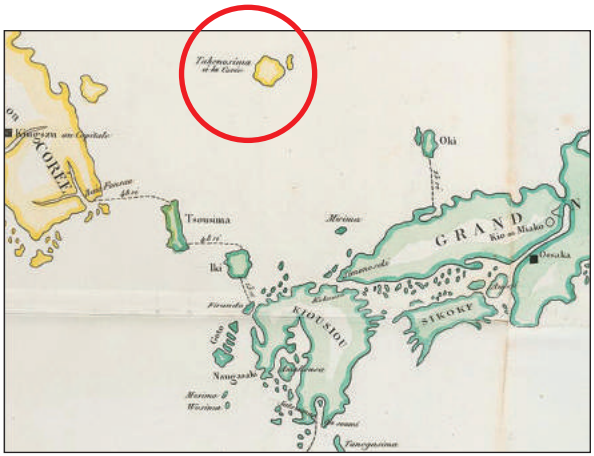


Q3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를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했나요?

➜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에서 그린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프랑스의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1737)는 서양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지도야. 중국의 지도를 바탕으로 그렸는데 울릉도를 범릉도, 우산도(독도)를 천산도로 혼동하였지. 그래서 울릉도를 판링타오, 우산도를 챤챤타오로 표기하였어.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의 한자와 범릉도(範陵島)와 천산도(千山島)의 한자를 봐. '울'과 '범', '우'와 '천', 비슷하지? 바로 한자를 혼동한 거야.

조선왕국전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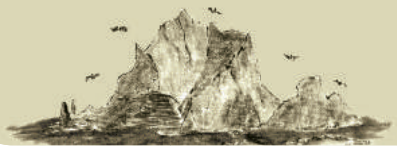


삼국총도

독일인이 만든 '삼국총도'(1832)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독일인들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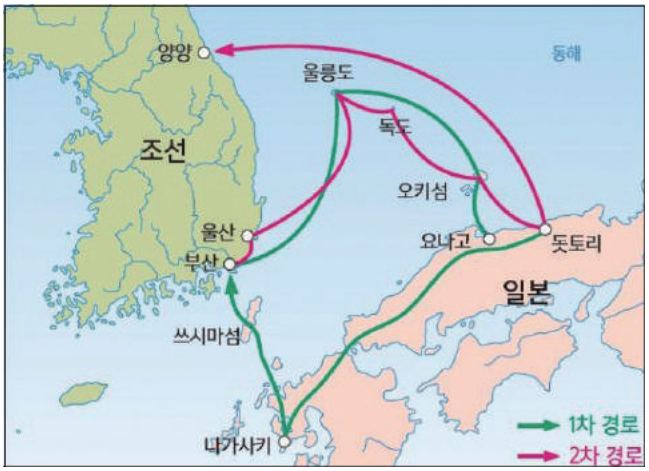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는 '조선 동해안도'(1857)야. 러시아 해군 수로국에서 해군들이 세밀하게 측량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어. 동도는 '메넬라이', 서도는 '올리부차'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붙였는데, 정확하게 조선의 동해안에 그려 넣었어. 아마도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지도로 생각돼.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지.

이처럼 기록들과 지도들을 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쳐. 독도는 명확히 우리 고유의 영토야.



Q4 안용복이 일본에 두 차례나 갔다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용복은 경상도 동래 출신의 어부야. 원래는 동래부(부산) 전함에서 노를 젓는 군인으로 일했어. 동래에는 일본 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출입하면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해.



안용복이 일본에 다녀온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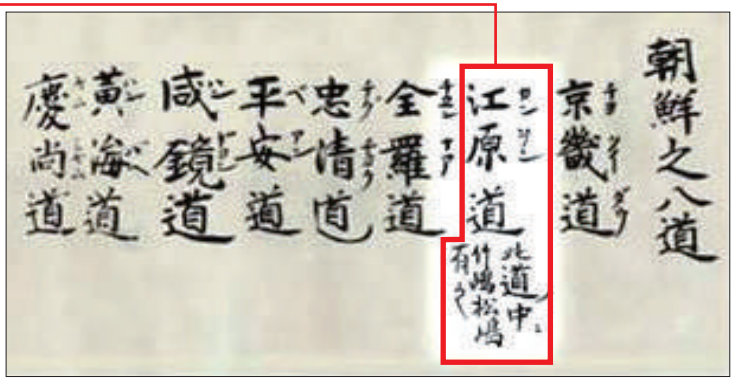
그런데 울릉도에 일본 어부들이 불법으로 건너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을 오키섬으로 납치를 해 버렸어(1693). 이것이 첫 번째 일본에 간 이유야. 이때 안용복은 오키섬 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돼.

1696년에는 일본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못하게 했어.

독 도 바로알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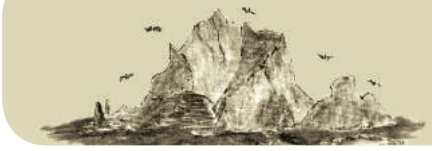
강원도
이 도(강원도)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
(독도)가 있다.



안용복의 진술을 오키섬 관리가 기록한 문서

그럼에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오자 안용복이 관리로 변장을 하고 일본에 다시 갔어(1696).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 때 일본 오키섬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남아 있어. 이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송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는 안용복의 진술이 것이 그대로 적혀 있어.

이때가 숙종 때야. 숙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발생한 논쟁을 '울릉도 쟁계'라고 해. 안용복의 활약으로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재확인하면서 울릉도 쟁계는 막을 내리게 돼.



당신은 누구요?
나는 조선의 안용복이오.
무슨 일로 일본에 왔소?
울릉도,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이 있어 항의하러왔소.
그게 무엇이 문제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땅이오!
일본인이 멋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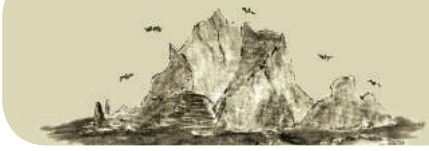
Q5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나요?

➜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야. 일본 스스로 쓴 기록이나 지도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까지 내렸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지.

그런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리고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고 이름 붙이고,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하였어. 그리고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린 거지.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 광고

일본이 패망(1945)한 이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에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해. 이 조약에 일본이 한국으로 돌려줄 땅에 독도라는 이름이 없으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1946년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가 수정된 적이 없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지 않나요?
태정관에게
물어보겠소.
시마네현
내무성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지 않나요?
협의 해서
알려줄테니
기다리시오.
내무성
태정관
회의 결과가
나왔소.
울릉도, 독도는
우리 일본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일본
최고 행정기관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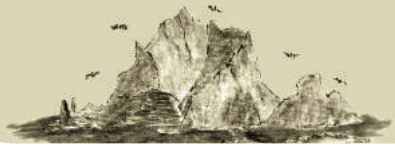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다케시마 반대 피켓 시위

이 677호에는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발표된 2월 22일을 '다케시마(죽도)의 날'로 선포했어. 그리고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참으로 뻔뻔하지.

Q6 일본은 왜 우리나라의 많은 섬 중에서 하필 독도를 욕심내고 있나요?

➜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어. 가사에 보면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동경 132 북위 37"이라고 독도의 위치가 나와. 정확하게는 동경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이야.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 하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157.5km나 떨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어. 그 이유는 독도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야. 먼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오징어, 전복 등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야. 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수심 300m 이상인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는데, 다른 연료보다 공해가 적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앞으로 30~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약 250조원에 달한대. 인산염광물이라는 자원도 약 2억톤 이상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욕심을 내는 거야. 이외에도 동해 화산 지형의 형성과정과 다양한 지질경관을 보여주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 유산이야.

독도의 독립문 바위(왼쪽)와 삼형제굴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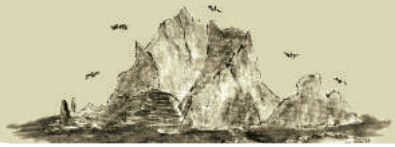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7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1905년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하자 울릉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어. 이 때 처음으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돼. 광복 이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불법 상륙하는 일이 많았어. 이에 우리 정부는 1953년 독도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이 세운 '죽도(竹島)'라는 표석을 뽑아냈어. 그리고 1954년 동도에 있는 독도 위령비 옆에 '독도' 표석을 세웠어.

독도에 세워진 독도 표석

'대한민국경상북도울릉군독도지표(大韓民國慶尙北道鬱陵郡獨島之標**)'**가 한자로 새겨져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일본의 불법 침범이 계속되자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독도를 지켜냈어. 그 후에는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면서 경비를 담당했어. 지금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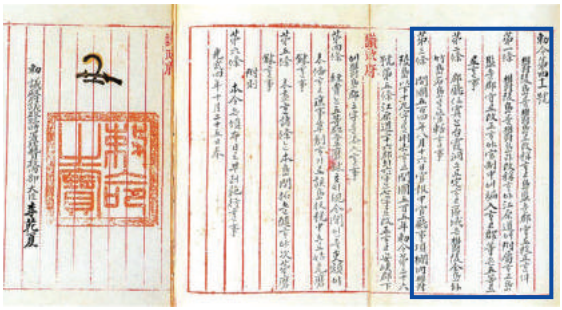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에 독도에 등대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서울에 있는 여러 나라 공관에 알렸어. 우리 땅임을 확실하게 하려는 거지.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행사 때마다 일본에서는 항의를 하였으나,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이런 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당연한 조치야. 이외에도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아래 독도연구소를 설치하여 독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 또한 민간단체인 '반크'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8 독도의 날은 언제인가요?

➜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을 기념하여, 2005년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제정하였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였어. 2004년에는 울릉군이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정했지. 2010년에는 시민단체들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독도의 날'을 선포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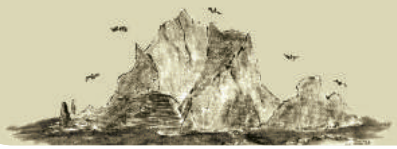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런데 왜 10월 25일일까?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야.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한 거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 죽도 : 독도가 아닌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 석도(石島) : 독도



Q9 독도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 독도는 경상북도에 있어. 정확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야.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총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 동도와 서도에는 각각 길이 있어. 동도에는 우산국을 점령한 신라 이사부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독도이사부길'이 있어. 서도에는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안용복의 이름을 따서 '독도안용복길'이 만들어져 있어.

독도를 가는 방법은 강릉, 동해 묵호항, 울진 후포항, 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해. 광주에서 가려면 포항이 가장 가까워. 포항까지는 약 290km로 3시간 정도 걸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217km로, 배로 3시간이 걸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로 약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지. 그러니까 광주에서 독도까지 가려면 무려 8시간 정도가 걸려. 따라서 하루에 독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숙박을 하고 독도를 다녀오는 것이 제일 좋아. 그런데 독도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서 항구에 배를 대기가 매우 어려워. 즉, 독도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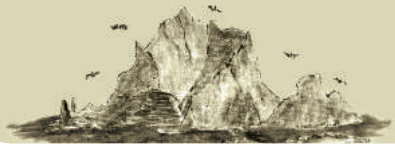
독도 가는 뱃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10 독도에 대해 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독도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 영토라고 이야기 해.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지. 독도에 대해 알아보려면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독도전시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 광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지하 1층에 '독도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면 좋겠어.

독도전시관(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서울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연구소'와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 독도에 관한 자료가 가장 풍부한 곳이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도 바로알기'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곳이야.

외교부도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외교부독도'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 또한 이곳에서는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도 있어.

외교부가 만든 독도 영상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 '사이버 독도', 울릉도의 '독도박물관',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독도종합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의 '독도지리넷'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관심 을 가지고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

- **광주 독도전시관** 광주 서구 학생독립로 30(화정동 51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지하 1층
- **동북아역사재단** www.nahf.or.kr
- **외교부 독도** dokdo.mofa.go.kr

(참고자료) 사이버독도, 독도박물관,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독도지리넷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

우리는 더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2006. 04. 25.)

독도 퀴즈

함께 풀어보세요

Q1 독도의 정확한 주소는 무엇일까요?

Q2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총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나요?

Q3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Q4 일본의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Q5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Q6 다음 중 독도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우산도 ② 가지도 ③ 석도 ④ 자산도 ⑤ 이어도

Q7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된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Q8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두 섬이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Q9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으로 한다”고 쓰여 있는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Q10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린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Q11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쓰여진 일본 지도는 무엇일까요?

Q12 서양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지도로, 울릉도를 판링타오, 독도를 찬찬타오로 기록한 프랑스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Q13 두 차례나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Q14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벌어졌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논쟁을 무엇 이라고 할까요?

Q15 당시 울릉군수로서 '독도' 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Q16 1900년 고종황제는 ( )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Q17 일본은 ( ) 중에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고 불법 침탈하였습니다.

Q18 '독도의 날' 은 언제일까요?

Q19 일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은 언제일까요?

Q2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맺어진 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돌려줄 땅에 독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된 조약은 무엇일까요?

Q21 일본의 패망 이후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 된 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것은 ( ) 제677호입니다.

Q22 일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 문제로 확대시켜 ( ) 에서 판결을 받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23 1950년대 일본이 계속 독도를 침범하자 홍순칠을 비롯한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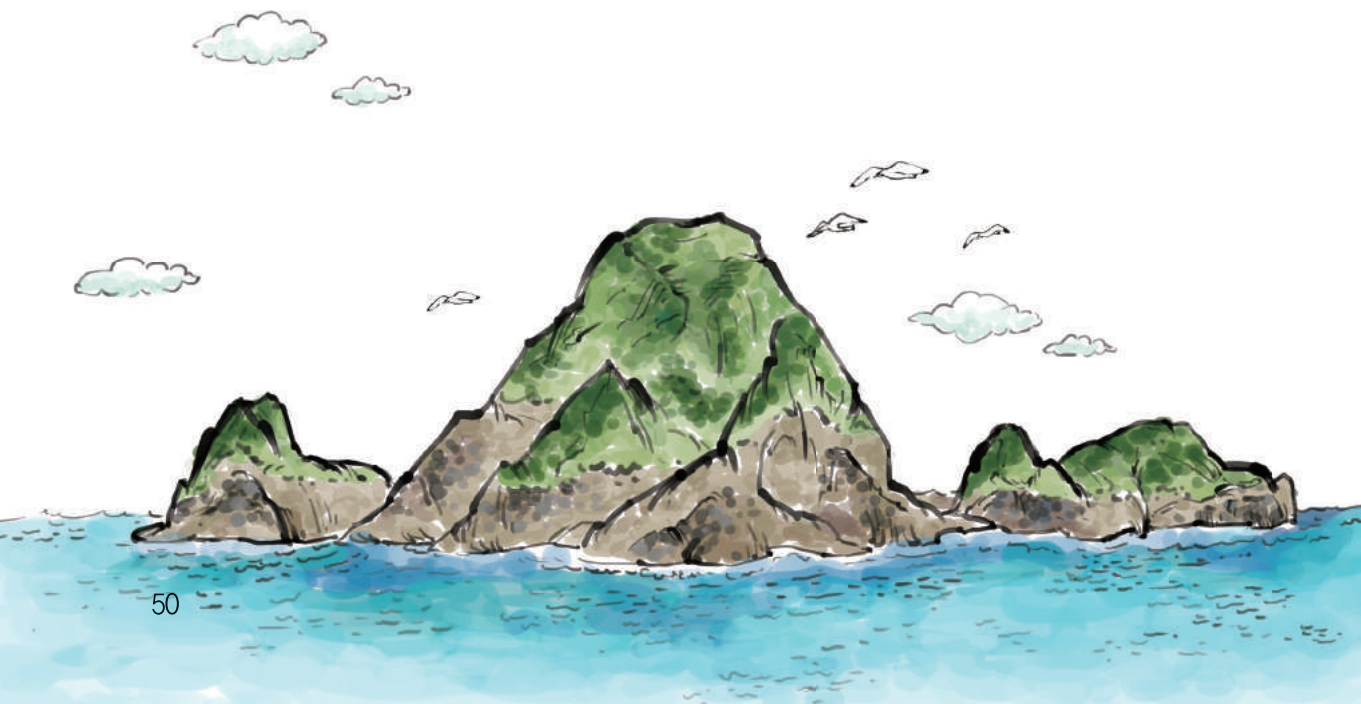
Q24 독도 주변에 매장된 지하자원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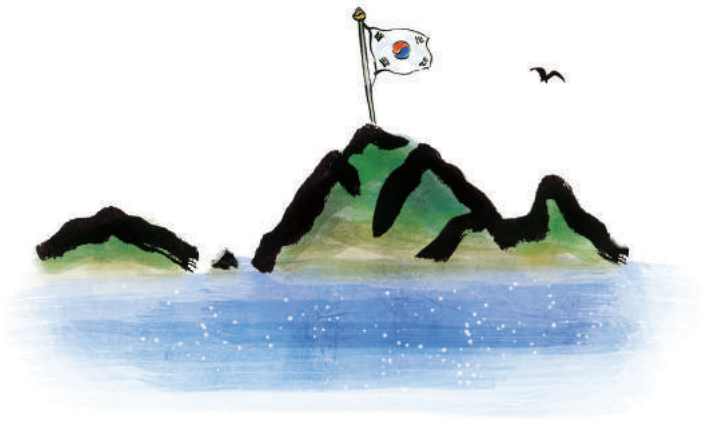
Q25 독도에는 2개의 길이 있습니다. 동도에는 우산국을 점령했던 신라 장군의 이름을 딴 '독도( )길', 서도에는 2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독도( )길'이 있습니다.

Q26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 ) 지하에는 광주 독도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
2. 91개
3. 87.4km
4. 157.5km
5. 다케시마
6. ⑤
7. 세종실록 지리지
8. 팔도총도
9. 은주시청합기
10. 태정관
11. 삼국접양지도
12. 조선왕국전도
13. 안용복
14. 울릉도 쟁계
15. 심흥택
16.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7. 러일전쟁
18. 10월 25일
19. 2월 22일
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1.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22. 국제사법재판소
23. 독도의용수비대
24. 메탄 하이드레이트
25. 이사부, 안용복
26.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일본이 잘못 알고 있는 **독도의 진실**

다케시마 NO! 독도 YES

총 괄 박치홍(관장)

발간기획 임채석(선양과장) 김유미(주무관) 김하정(학예연구사)

원고집필 및 검토위원 신봉수(교사) 윤덕훈(교사) 김보름(교사) 김민선(교사) 강민경(교사)

삽 화 이재훈(주)공감미디어

인쇄제작 한출판(062)-228-0721

발 행 일 2019년 4월 8일

발 행 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독도전시관)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와 홍보물을 분석하여 우리의 반박 · 대응 논리를 담아 만들어진 교육 자료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독도전시관)

62024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 독도전시관(지하1층)
TEL 062-221-5531~4 FAX 062-221-5539